

시각장애인은 요리할 수 없다? 편견 깬다

광주시 동구, 지자체 첫 점자 요리책 발간...무료 나눔 깨끗김치·로제파스타·찜닭 등 김현진 명인 레시피 담겨

'시각장애인은 칼과 불을 다루며 요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깨는 책이 발간됐다. 광주시 동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요리책'〈사진〉을 펴내고 무료 나눔을 시작한 것이다. 동구는 "광주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난 18일부터 점자 요리책 '요리조리 쿠킹클래스'를 발간해 광주시 동구 서남동 동구평생학습관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책에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이용한 20가지 요리의 조리법이 담겼다. 요리 종류도 깨끗김치, 상추겉절이, 진미채무침 등 간단한 반찬부터 로제파스타, 궁중떡볶이, 안동찜닭까지 다양하다.

여는 요리책과는 달리 사진은 한 장도 실려있지 않으나, 광주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김현진 명인이 정리한 요리법이 순서에 맞

춰 자세하게 점자로 기록돼 있다.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적은 레시피도 책 뒷면에 실렸다. 책은 동구가 최근 동구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리조리 쿠킹클래스' 프로그램 배움으로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동구가 올해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라 운영됐다. 동구는 사업을 통해 국비 5000만원 등 총 1억여원을 들여 동구 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 비장애인 221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요리조리 쿠킹클래스'는 발달장애인 10명에게 요리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운영됐으며 김 명인이 강사를 맡았다.



동구는 이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리 교육까지 추진하자는 내부 의견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점자 요리책을 만들었다. 레시피는 김 명인이 '요리조리 쿠킹클래스'에서 제공했던 것을 글로 옮겨 담은 것이다. 점자 번역은 광주시 시각장애인연합회가 맡았다. 연합회 또한 지난 6월부터 광주시 동구 내남동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열었는데 호응이 뜨거웠다는 것이다. 동구에서도 같은 취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흔쾌히 번역 작업에 동참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점자 요리책이 시각장애인 스스로 건강한 집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없다는 편견 때문에 인스턴트 요리와 배달 음식에 의존하기 쉽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또 연합회는 기존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요리책이 없어 레시피를 구두로 전달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요리책 덕분에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레시피를 배울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동구는 점자 요리책을 총 100부 발간해 광주 지자체에 3부, 동구 장애인복지관에 10부, 광주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 20부 배부했다. 나머지 67부는 동구평생학습관에 비치해 누구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시 등록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은 7146명이며 이 중 동구에는 621명이 거주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권 대학 박람회

공공기관 등 40여곳 참여 26~27일 광주여대 체육관

지역 인재들의 진학·진로를 모색하는 광주전남권 대학 박람회가 26~27일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열리는 박람회는 광주시, 전남도, 양 시도 교육청, 광주·전남 대학총장협의회가 함께 마련했다. 대학, 공공기관, 한국전력 등 40여곳이 참여해 대학·기업 홍보, 대학 입시 강연, 토크콘서트 등 행사를 진행한다. 대학별 수험생 상담, 지자체 청년 지원 정책 소개, 기업 인재 채용 상담 등이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대입 전형, 면접 준비, 수능 관련 정보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이정은 광주시교육감은 '슬기로운 고교생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인권, 지역과 청년'을 주제로 강연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4학년도 대입수능 원서 접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접수가 24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교육감 직속 교원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 등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원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4일 교육감 직속으로 교원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교원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감 직속 교원보호 현장지원단은 교원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지원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실시, 피해 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법률지원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자격으로 동반 입회해 분쟁을 조정한다. 교육청은 또 광주시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학생과 보호자, 학교장 및 교원의

책무를 명시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근무 시간 외에 부적절한 상담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교원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려면 전화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교사가 감당하기 힘든 악성 민원은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은 교육감은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고 회복되도록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 국민혈세로 일본 위해 안간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제3자 강제징용 보상 항고 비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일본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광주지법에 항고를 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단체는 "법원으로부터 공탁 불수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거듭 되자 맞은 것을 자성하기는커녕, 다시 다투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어렵게 성취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일이나"고 따져 물었다. 단체는 정부의 변호인단을 두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민원일 전 대법관 등 9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면서 "항고 절차에 나선 그 돈은 결국 누구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온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2일 구 박해옥 할머니의 배상금 관련 전주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 생존피해자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의 배상금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시청 직원, 보육대체교사 농성장 강제 철거...경찰 수사

광주시청 직원들이 시청 1층 로비에서 224일째 농성 중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 노조원들의 물품을 무단으로 철거하자 보육대체교사 노조원들이 농성장에 나섰다.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A씨 등 광주시청 직원 3명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노조원들의 텐트와 피켓, 돗자리, 벽보 등을 철거하자 보육대체교사 노조원들이 농성장에 나섰다.

이들은 40여분에 걸쳐 텐트를 옮기고 벽보를 떼어낸 뒤, 청사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노조원들은 현장에 없었다. A씨 등은 시청 청원경찰로부터 신원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치우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 등의 신원을 특

정하고 이들이 광주시청 직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보육대체교사들은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장기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광주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부당하게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으며 복지 및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학 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합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3	22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합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학부 전형일정

<p>수시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 2023. 9. 11(월) ~ 15(금) 	<p>전형일: 2023. 10. 6(금)</p>
<p>정시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p>전형일: 2024. 1. 19(금)</p>